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102호 정토사 흥법국사실상탑



정토사 흥법국사실상탑

서정춘

사각의

넓은 자릿돌이

팔각돌 모서리와 높고

그 위에

연꽃 한 송이는

굽어 피어 었드려

아롱진 꽃구름과

등룡을 거느렸다

그 위에 또

여러 잎 연꽃 한 송이는

이응알들 우러러

도리천 육계를 들어올렸음이여

아, 샅갓 쓴 흥법국사

법신이려니,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서정춘 시인은... 전남 순천 출생. 1968년 〈신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죽편), 〈불, 파르티잔〉 등.

조계종 15대 중앙종회 하반기 원 구성

192차 정기회 개최... 의장 향적, 부의장 정묵·법안 스님 선출

15대 조계종 중앙종회 하반기 원 구성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2차 정기회를 15일 간의 회기로 개원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먼저 하반기를 이끌 종회의장으로 향적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어 수석부의장에 정묵 스님과 차석부의장에 법안 스님을 선출했으며, 사무처장에는 경유 스님이 유임됐다.

향적 스님은 선출 직후 "만장일치 선출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종법 제개정은 종단 100년 대계와 종도 권익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일

상임분과위원회 구성 마무리

중앙종무기관 감사로 휴희

내년 예산·총림 지정 등 쟁점

은 의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원 스님들의 협조와 조연을 당부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임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총무분과위원회에는 성직, 무관, 일문, 무애, 법진, 지홍(나) 스님 등 15명이, 교육분과위원회에는 해립, 종성, 동운, 정법 스님 등 9명이, 포교분과위원회에는 원범, 태연, 구과 스님 등 7명이, 사회분과위원회에는 본해, 정문, 주경, 정산, 종산, 삼해, 대오 스님 등 10명이, 재정분과위원회에는 정도, 활중, 정범, 각일, 제정, 범우, 오십 스님 등 15명이, 호법분과위원회에는



향적 스님



정묵 스님

법안 스님

원학, 덕수, 정인, 각립, 장윤, 장적, 영배, 심우, 탁연 스님 등 15명이, 법제분과위원회에는 초격, 용산, 보선, 법안, 원해, 경운 스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원장 인선도 정해졌다. 총무분과위원장에는 무애 스님이, 교육분과위원장에는 해립 스님이, 포교분과위원장에는 장명 스님이, 사회분과위원장에는 대오 스님이, 재정분과위원장에는 성월 스님이, 호법분과위원장에는 원학 스님이, 법제분과위원장에는 초격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인사심의특별위원회는 주경, 정산, 성직, 초격, 대오, 적천, 계환 스님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성직 스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조계종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총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휴희했으며 11월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한다. <차주 상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의·결정하는 이번 중앙종회는 종헌, 종법 제개정 이외에도 주목할 사안이 많다. 특히 동화사와 썩게사, 범어사가 신청한 총림

지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들 세 사찰이 모두 10월 16일 총무원에 총림 지정을 신청했고, 19일 총무원 총무회의에서 정기중앙종회에 송부할 것을 결의했다. 다만, 엄불원 설치,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이 미비해 2년 안에 관련 시설을 보완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10월 26일 열린 '총림법 개선을 위한 좌담회'에서 보이지 듯 주지 선거 폐해를 막기 위한 식의 총림 지정은 불가하다는 여론들이 많아 통과 여부가 투명하지만은 않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에 대한 심의·결정도 이번 종회에 다루지는 주요 사안이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상정된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은 일반 회계 228억여 원, 특별회계 195억여 원, 총 423억여 원이다.

이와 함께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호계원장에는 차기 호계원장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후보로 추천됐다. 일면 스님 추천은 원담 스님이 대표 발의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말 불교의식

체계적 선율연구 필요

한글 천수경 공청회 개최

조계종 종단본 한글 천수경 제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의례위원회는 10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글 의례문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한글 천수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불찬법음연구부장 해일 스님은 한글 천수경의 음악적 구조 정립에 대해 제안했다.

해일 스님은 한글 천수경이 담아야 할 운곡에 대해 >한역의 운곡을 최대한 살려 적용할 것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게 운곡할 것 >엄숙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음높이와 속도를 정할 것 >보급 후 선율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해일 스님은 "우리말 의식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식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아름답고 장엄스러운 선율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한글본 천수경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중앙종회에 상정되게 된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총무원과 의례위원회는 10월 29일 종단본 한글 천수경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1회 불교음악상 공모

조계종 11월 23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불교음악인들을 격려하고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제1회 불교음악상'을 공모한다. 지원 분야는 불교음악 개발(작사, 작곡, 편곡 등)·보급(연주, 가창 등)·기타 불교음악 발전 등이며 추천 공모를 통해 후보를 접수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추천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교구본사 주지와 조계종 등록 사찰 주지 및 각급 문화·포교·신도 단체장(또는 총무원 문화부장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 추천 가능) 등이 할 수 있다.

추천 및 지원 접수 기간은 10월 25일~11월 23일까지이며 조계종 문화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되며 대상(1명)에게는 500만원, 공로상(2명) 각 300만원, 원력상(2명) 각 100만원 등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혜숙 기자

“불교, 노·사·정 넘는 대안 제시해야”

조계종 노동위, 노동문제 불교적 해법 창출 공청회

현대 사회의 화두인 노동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10월 30일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노동문제의 불교적 해법 창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사진)는 기존 발제에서 불교적 노동관을 살피고 조계종 노동위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불교적 노동관에 대해 유 교수는 "붓다의 노동 개념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행위의 선업과 중생의 선한 공업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 행위가 해탈을 지향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불교의 노동개념은 모든 생존문제와 해탈의 수단으로 귀결되는, 이른바 '좋은 노동'을 추구한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출범한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유 교수는 "노동위원회는 노사는 물론이고 정부도 해결 못하는 이 과제를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인 소외된 노동을 지양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수호 前 민주노동위원장은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노동자의 21세기 소도'가 돼줄 것을 주문했다.

이 前 위원장은 "불교계는 노동자의 소도 역할을 해 줘야 한다. 부처님 품에 뛰어들어 수 밖에 없을 때 이들을 내치지 말고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신종일 기자

심인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모집

▶ 밀교사상과 수행 (密敎思想·修行) ◀

과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상 : 일반불자, 승려 (비구, 비구니) 법사
강의 : 매주 일요일 12시 ~ 1시 30분 <점심공양>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법복착용>, 필기도구는 제공
등록금 : 100,000원 / 교재비 : 30,000원

▶ 공부할 과목 ◀ 지도법사: 법운(法雲)스님

- 근본불교: 비밀불교의 기본사상(秘密佛敎의 基本思想)
밀교란: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밀교의 삼대사상: 1. 육대(六大) = 체(體): 地, 水, 火, 風, 空, 識
2. 사만(四曼) = 상(相): ① 대만다라(大曼荼羅) ② 법만다라(法曼荼羅) ③ 삼매아만다라(三昧耶曼荼羅) ④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
3. 삼밀(三密) = 용(用): 심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
밀교의 만다라: ①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②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밀교의 삼륜신: ① 자성륜신(自性輪身) ② 정법륜신(正法輪身) ③ 교령륜신(敎令輪身)
현교의 삼신불: ① 법신(法身) <비로자나> ② 보신(報身) <노사나> ③ 화신(化身) <석가모니불>
위빠사나 수행법, 탄트라와 명상법
육자진언염송 <올마니반메출>
현교와 밀교성불론의 차이점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031)692-3653, 011-9356-3653

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Content. Rows include Basic Course (3 months), Intermediate Course (3 months), Practice Class (1 year), and Special Practice (1 year).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2년 11월 18일 까지
개강일시: 2012년 11월 19일(월요일) 개강. 매주(화, 금) 오후 5시~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